한국-네팔 불교도 '불국정토 구현' 동행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

"108산사 순례라는 대장정의 원력을 세우고 처음 통도사에 첫 발을 내딛을 얻을 때, 무지개가 뜬 걸 보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룸비니 동산에 부처님 진신 사리를 모실 수 있게 돼 정말 기쁩니다."

2008년 우연히 인도 쿠사나가르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8과를 봉양받게 된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은 부처님 사리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대해 고민했다. 스님은 결국 봉양받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부처님 고향땅인 룸비니에 모시고 갈 것을 서원했다.

"2008년 네팔은 내전의 상흔으로 나라가 상당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108순례기도회 회원 300여 명과 함께 네팔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사리를 룸비니에 모시고자 당시 총무원장이셨던 지관 스님을 설득해 어렵게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네팔은 선묵혜자 스님과 108순례기도회 방문에 크게 감동했다. 모든 나라에서 네팔 방문을 꺼려하던 시기에 네팔 정부의 초청을 스님은 흔쾌히 들어준 것이다.

"이상하게도 회원들과 제가 네팔을 방문하자 네팔 정세가 점차 안정을 찾아 갔습니다. 당시 코이랄라 수상이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와서 네팔에 평화의 불씨를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코이랄라 수상이 급하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룸비니의 성역화 활성화를 위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룸비니 동산에 모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네팔 정부는 현 기념탑 자리에 네팔 왕조의 기념탑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이랄라 수상은 선묵 혜자 스님에게 흔쾌히 그 자리를 넘겨줬다.

스님은 "현재 기념비가 건립된 땅은 룸비니 동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이다. 태국 일본 중국 등이 룸비니성역화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기념비 앞으로 정문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룸비니 공원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기념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당시 코이랄라 수상이 기념비가 완성된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이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 아쉽다. 지금도 코이엘라 수상이 많이 생각난다"고 전했다.

본래 기념비 안에 모셔질 부처님 진신 사리는 1과였다. 하지만 스님은 네팔 입국 전, 수도사에서 무지개가 뜬 것을 보고 3과를 모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록 자연의 현상이긴 하지만 뜻 깊은 일을 앞두고 남다른 징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묵혜자 스님은 "올해가 룸비니 방문의 해이다. 마침 룸비니 동산에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탄생불 제막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현재 '한국 네팔 불교도 우정의 평화공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평화의 종' 건립과 평화공원 조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룸비니=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평화의 씨앗 심는 불사"
룸비니 동산에 기념비
평화의 종 건립과
평화공원 조경 추진

선묵혜자 스님(사진 가운데)이 탄생불 봉안에 앞서 진신사리를 복장 속에 넣고 있다.

룸비니 동산에 조성된 기념비와 탄생불

108산사 순례기도회 회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 3과를 이운하고 있다.

"실천 가장 중시했던 스님"

17일 법정 스님 추모 법회
생전 가르침 따라 간소히 진행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이 헌향하고 있다.

무소유 정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지혜를 주고 떠난 법정 스님의 2주기 추모 법회가 2월 17일 성북구 길상사 설법전에서 봉행됐다. 법회는 법정 스님의 생전 가르침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됐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독송으로 시작한 법회는 헌향, 헌다,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추모영상이 상영된 뒤 법정 스님의 출가 본사인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과 주지 영조 스님이 각각 추모 법문과 추모사를 전했다.

생전의 법문을 담은 추모영상에서 법정 스님은 "〈법구경〉에 있듯이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을 너그럽게 흐르게 하면 자신의 삶이 달라진다. 마음을 자기가 알아야 내 인생의 새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추모사에서 "무엇보다 실천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 법정 스님이다. 법정 스님의 정신 이어 받아 반야바라밀을 행하는 불자가 되길 바라고, 이 인연 오랫동안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이 시대를 밝힌 등불이었던 스님을 영결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 세월의 빠름을 실감한다"고 밝히고 "비록 영겁의 나라에 있지만 스님이 남긴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다"고 말했다.

추모 법회에는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원로의원). 前 송광사주지 현고 스님, 조계종 법규위원장 무상 스님,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통광 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명성 스님(운문사 강주, 前 비구니회장), 원행 스님(월정사 부주지), 덕운 스님(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문도대표) 등 각계 스님들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조윤선 새누리당 의원, 이계진(前 맑고향기롭게 이사 · 전 한나라당 의원), 손안식(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시민단체 '맑고 향기롭게' 관계자 및 일반 불자 등 1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2월 17일 룸비니 동산 인근 마듀버니 마을에 건립한 108선혜학교에서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이 현판식을 봉행하고 있다.

108선혜학교 현판식 · 3월 완공

108산사순례기도회, 룸비니에서 자비나눔실천

선묵혜자 스님과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자비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2월 17일 룸비니 동산에서 1㎞ 떨어진 마듀버니 마을에 108선혜학교를 건립하고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번 학교 건립은 청담 스님의 '산중에서 거리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한국에서 세계로' 라는 원력을 실천하기 위해 거행됐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108산사 순례를 시작한 이래 농촌, 군장병,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자비나눔사랑을 실천에 주력해 왔다. 학교는 120평 규모로 최대 180명의 학생들의 수용할 수 있는 공립학교이며, 교육과정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업이 진행된다. 현재 학교는 3월에 완공 돼 4월 초부터 입학생을 모집한다.

이현수 직할교구 신도회장(도선사 신도회장)은 "부처님 탄생지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학교 건립도 추진될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며 "'세계일화' 정신으로 앞으로 네팔과 한국이 많은 교류를 통해 부처님의 고향인 룸비니가 더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룸비니=이은정 기자

천태차문화대학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천태차문화대학 제1기

천태차문화대학

수강기간	2년
수강대상	차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수강인원	00명
특 전	1. 수업료 전액 무료 2. (사)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 다도대학 수료증 3. 천태종단내 차문화연구원으로 각종 행사에 활동
교 과 목	한국차문화사, 중국차문화사, 일본차문화사, 동다송, 다신전, 불교학개론, 초발심자경문, 예절, 제다, 천태다법

천태차문화대학원

수강기간	2년
수강인원	00명
교 과 목	다경, 일본다도실습, 중국다예실습, 도자기 감상 및 실습, 제다, 천태다법, 다화, 품평, 다시 감상, 특강

천태차문화대학원 심화과정

수강기간	1년
수강인원	00명
교 과 목	차와 명상, 다부, 교육학 개론 및 실기 방법론, 향도, 제다, 홍차 및 테이블 세팅, 다식 및 천연염색, 특강

교육목적
한국불교차문화의 대중화에 노력해온 (사)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가 한국불교천태차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불교차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 다도교육을 실시한다.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는 천태차문화대학에서 진행하는 다도교육을 통해 심신을 청정하게 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목표
차(다도)에 대한 예술 · 인문 · 과학 · 사회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배운다. 한국불교의 전통다예, 헌다의식, 끽다 예법을 익히게 하여 우리나라의 불교차문화 대중화에 기여한다.
천태다법을 연구 계승 발전시킬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다도를 통하여 심신수련과 자아실현을 추구한다.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교부기간 : 2012년 3월 1일 18:00
- 원서 교부처 : 1.천태종 홈페이지→참여마당→자료실
  2.총무원 교육부(구인사)
- 접수 : 2012년 2월 1일~3월 2일 18:00
- 접수방법 : 우편 · 방문 · 이메일 접수(7315kyo@hanmail.net)
- 접수처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천태종 총무원 교육부
- 원서 접수비 : 5,000원

■ **면접 일시 · 장소**
- 면접 : 2012년 3월 3일(토) 19:00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강의실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 개강일(입학식) : 3월 7일 17:30
- 문의전화 : 043)420-7315(총무원 교육부)
- 담당자 : 김동상, 김영은

■ **차문화대학 위치 및 오시는 길**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9-4 운현궁SKHUB
- 서울역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시내버스 151번, 704번, 8000번
- 고속버스터미널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시내버스 401번

※ 상기 사항은 사정상 변경될수도 있습니다.